

금속노조 충남지부 운영위원회는 2월 9일 충남지부 14기 1년차 사업계획 현장토론안을 확정하고 2월 22일까지 현장토론을 진행합니다. 2월 23일 지부 운영위원회는 충남지부 정기대의원대회에 제출할 안건을 확정하고, 3월 10일 예정한 지부 정기대대에서 올해 사업계획과 임단투 방침을 최종 결정합니다.

충남지부가 현장토론안에 담은 올해 핵심과제와 목표는 △ 지역산별교섭 확대 강화 투쟁 △ 원청교섭 쟁취 투쟁 △ 현장조직력 및 간부역량 강화입니다.

집단교섭 정상화, 돌파구 찾는다

충남지부 소속 42개 지회중 중앙교섭, 지부집단교섭에 사측이 불참하는 곳은 20개 지회, 조합원수는 11,000명에 달합니다. 70%가 넘는 조합원들이 산별교섭군에 포함되지 않으며, 산별(지역)협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앙교섭도 마찬가지로 상황으로, 충남지부는 그 축소판입니다.

충남지부 집단교섭에 불참하는 사용자들이 늘어나면서 지역 교섭과 투쟁에 현장의 집중도와 관심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부발전기금, 간부파견을 둘러싸고 참가사업장과 불참사업장의 간극과 이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불참사업장은 대부분 현대차-삼성그룹사, 단일기업 전국 단위 사업장, 복수노조-소수노조 사업장입니다. 대책을 해당 지회에 맡길 것이 아니라, 지부가 현장 교섭을 직접 관장하여, 불참사업장의 원인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울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본류인 교섭구조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첫 번째 과제입니다.

2026년 충남지부 요구안 정세에 맞춰 집중력 높인다

충남지부는 올해 요구안으로 지부집단교섭 참가사업장과 불참사업장 요구안을 동시에 방점을 찍고, 병행합니다.

먼저, 지부집단교섭 요구안으로 △기본급 월149,600원 인상 △중앙교섭 불참사업장 참가확약 △지부발전기금 정상화(연체사업장 완납) △노사공동 대지자체(충남도) 요구 △노동쟁의 확대 권리보장 △정년퇴직 예정자 지원 등을 제출합니다. 지역산별교섭 정상화와 노조법 개정에 따른 초기업단위 교섭 활성화 및 노사 교섭의제 확대, 고령 조합원 증가에 따른 지원이 골자입니다.

원청교섭 쟁취, 선봉으로 뚫는다

사용자의 범위와 쟁의행위 범위가 확대된 개정 노조법이 올해 3월 10일로 시행됩니다. 올해 충남지부 8개 지회, 3,600여명의 조합원들이 진짜 사용자와 진짜 교섭을 하기 위한 투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충남지부는 가장 먼저 이 동지들을 엄호하고 조직해야 합니다.

충남지부는 전국의 하청·자회사 동지들과 금속노조 원청교섭 투쟁본부 지침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실천할 것입니다. 현장의 동력과 투쟁으로 교섭권을 쟁취하는 것이 원청교섭 투쟁의 관건입니다. 지부가 현장을 조직하고 세밀한 전략 전술을 구사, 지역에서 현대차그룹 재벌자본과 전면전을 할 각오로 투쟁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올해 원청교섭 지역 투쟁을 전형을 만들고, 개정 노조법 2,3조의 취지가 실제 현장에서 실현되게끔 하는 것이 두 번째 과제입니다.

현장 조직력 강화, 집중지원한다

현장이 무너지면 지부의 사업계획은 무용지물입니다. 현장은 자본주의 질서와 그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전쟁터입니다. 현장은 부당함과 부조리함을 향해 싸울 때 가장 역동적입니다. 현장의 역동성이 지역으로 모아질 때 충남지부의 단결과 연대의 기운이 살아날 것입니다.

지부는 현장의 교섭과 투쟁을 지원하고 지도하는 사업을 배치합니다. 현장 간부에게 조합원을 조직하고 자본과 맞서 싸울 무기를 제공하는 것이 지부의 역할입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현장 간부의 자신감과 자부심을 높이는 교육, 학습, 조직화 사업을 기획하는 것이 세 번째 과제입니다.

불참사업장의 경우 중앙교섭 및 지부집단교섭을 최우선의 쟁취 의제로 설정하며, 별도의 대책방침을 지부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특히 "산별교섭 참가 확약없이 사업장 교섭 타결 없다"는 점을 지부가 회사에 명확히 주지시킵니다. 지부장이 직접 불참사업장 교섭 추이와 동향을 점검하고 완강히 저항하는 회사에게는 집중 대책을 세울 것입니다. 다른 지역지부에 교섭권이 있는 전국단위 사업장의 경우도 다양한 교섭형식을 통해 방안을 찾는다는 구상입니다.

이런 전략은 지부-지회가 함께 눈높이를 맞추고 호흡을 같이 해야 가능합니다. 이를 위한 공세적인 현장 조직화 사업을 3월 정기대대 이후에 전개할 계획입니다. **충남**